전갑수·송진호 광주·전남체육회장 취임 100일…변화·혁신 기치 선진 체육행정 '새바람'

'시민과 상생' 스포츠문화 조성 '소통·화합' 열린체육회 구현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과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전 회장과 송 회장은 '시·도민 행복과 건강지킴이'라는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내세웠던 공약을 하나하나 실천하며 일선 현장에서 답을 찾아가는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국체육대회가 전남에서 열리는 만큼 한 뿌리인 광주·전남체육회가 적극적인 소통으로 하나가 돼 역대 최고의 성공대회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변화와 혁신, 소통과 화합을 기치로 선진 체육 행정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시·도체육회의 지나온 100일과 광주·전남 체육의 새로운 100년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광역지자체 최초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도입 처우 개선
종목단체 전무이사회 활성화…체육인프라 구축 박차
2038 광주·대구 AG 공동 유치·광주國體 개최 적극 행보

전 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취임 이후 관내·외 각종 행사 참여와 대회를 참관·격려하고, 시체육회 관리 체육시설을 순회하며 종목단체 임직원을 비롯한 동호인, 선수, 지도자들과 소통·화합을 강화해 왔다.

전 회장은 광역지자체 최초로 광주 5개 구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83명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호봉제를 시행했다. 호봉제 도입은 학교, 체육시설 등에서 체육활동을 지도하고 시민건강을 책임지는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돼 생활체육 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되도록 했다. 지도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광주시와의 적극적인 행정협의를 통해 시비 증가분을 확보했다.

지난 2월에는 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임원(이사)의 정원을 50명에서 70명으로 증원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하는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 임원들의 위상을 세우고 체육 행정이 선진화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약 3년 동안 멈춰있던 종목단체 전무이사 회의 재개와 함께 종목단체 전무이사협의회를 구성했다. 승마협회 박도성 전무이사를 협의회장으로 선임했고 전무이사들이 업무를 처리하거나 만남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관 내에 공간을 마련해 종목단체와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할 수 있는 초석을 다졌다.

2038 광주·대구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전 회장은 지난 3월29일 박영기 대구시체육회장을 비롯한 광주·대구시체육회 관계자 등과 대한체육회를 방문해 아시안게임 개최계획서를 제출했다.

더불어 체육 인프라 확충과 지방체육 발전을 위해 전국체육대회가 광주시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시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광주는 2007년 10월 제88회 전국체전을 개최한 바 있는데 올해를 기준으로 16년이 지났다. 광주 전국체전 유치는 스포츠 활성화를 바라는 광주체육인들의 염원으로, 광주시, 대한체육회 등과 다각적인 채널로 논의하고 있다.

또 스포츠클럽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존의 광주형스포츠클럽을 확대해 학교·생활·전문체육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지정스포츠클럽 공모에 3개 클럽이 추가 선정돼 기존 7개 클럽을 더해 총 10개의 스포츠클럽이 모두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2023년 지정스포츠클럽 대상 특화프로그램 및 전문선수반 지원사업' 공모에서 총 9억400여만원을 확보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초·중급반 등 수준별로 구분 편성해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2025년 광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세계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발걸음을 시작한다. 오는 8월 독일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대회기 인수를 시작으로 광주시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경기장 시설점검 등 성공개최를 위해 체육인들의 역량을 모으고 있다.

민선2기 16개 공약과제 중 6개를 추진하는 등 광폭행보로 공약 이행을 차근차근 달성하고 있다. 또 지속적으로 학교운동부 창단 지원과 체육인 일자리 창출 등의 공약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광주체육장학재단 설립 및 대규모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과 재정자립을 위한 체육진흥 조례 개정 등의 실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전갑수 회장은 "공약사업이 모두 광주체육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체육단체, 체육인들의 대변자로서 모든 체육인의 지혜와 힘을 모아 시민과 상생하는 스포츠문화 조성을 통해 스포츠 선진도시로 발돋움하고 싶다"고 말했다.

소년체전 근대3종 입상선수를 시상하는 전갑수 회장.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한 광주 양궁선수단을 격려한 후 선전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전갑수 회장.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

여자검도팀 등 실업팀 창단 결실…연계육성 시스템 구축
현장과 소통·수익사업 창출 초점, 다양한 위원회 증설
전남 전국체전 성공개최, 인프라 활용 각종 대회 유치 전력

송 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전문체육 ▲생활체육 ▲스포츠문화 ▲체육행정 ▲체육복지 등 5개 분야의 추진방향을 단기-중기-장기 등 세부적으로 전략을 세워 전남체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송 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조직의 안정과 내실을 다지기 위해 집행부도 새롭게 꾸렸다.

민선 2기 이사진인 만큼 화합·소통을 통한 인사에 주안점을 둔 송진호 호가 출범했다.

균형있는 인사를 통해 학교·전문·생활체육의 조화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종목단체 회장 선임 등 분야별 전문가를 고루 등용해 다양한 의견과 소통을 통한 변화와 혁신의 의지를 담았다.

또,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각종 위원회도 증설했다.

국제스포츠문화교류위원회, 예산심의위원회,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 지역스포츠산업위원회, 기금관리위원회 등 기존 11개였던 위원회를 5개 추가 확대해 16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송 회장은 또 전국 시·도체육회장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임되며 지방체육 간 소통과 협력을 다지는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됐다.

전문체육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국체육학회와 MOU 체결 등 전남체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남태권도 양 단체의 정상화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고, ㈜서영여자검도팀 등 각종 실업팀 창단, 대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팀 창단 공모사업에서 11억8천6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4개의 실업팀레슬링·수구(전남체육회), 육상(진도군), 복싱(목포시)이 선정돼 창단됐다.

이를 바탕으로 전남체육의 오랜 숙원사업인 초-중-고-대-실업팀의 연계육성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켰으며 우수선수 확보로 전문체육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에서도 도내 지정스포츠클럽 특화프로그램 공모사업에서 총 45개 프로그램, 국비 12억2천200만원을 확보해 스포츠클럽 활성화에도 힘을 보탰다.

은퇴선수, 직장선수, 지도자 및 생활체육에서 활동하고 있는 체육인들의 능력개발과 자질향상을 위해 목포대학교와 MOU를 통해 평생교육원에 학위 취득을 위한 수업 개설에 앞장선 바 있다.

송 회장은 나아가 공공기관 및 행정기관 직장팀 창단 추진과 도민의 1인 1운동 갖기 정착을 위해 생활체육 동호인단체 육성 및 대회 지원,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 스포츠클럽을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전남도체육회는 오는 10월 15년 만에 전남에서 개최되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전국종합체육대회준비단을 신설·운영하고 원활한 대회운영을 위해 경기용 기구 구입, 경기장 공·승인 업무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특히 민선체육회의 가장 많은 우려를 안겼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수익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를 기점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체육시설 인프라를 통해 전국·국제대회를 유치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복안이다.

송 회장은 "엊그제 취임한 것 같은데 벌써 100일이 지나간다. 소통과 화합으로 체육인들과 함께 전남체육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며 "단기적인 2023년도 목표를 비롯해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는 목표와 내세운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중 기자

전남골프 꿈나무를 격려하는 송진호 회장.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한 전남 육상선수단을 격려하고 파이팅을 외치는 송진호 회장.